

광주관광공사 '재미·활력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견인

DJ센터와 통합·출범 1년...관광매출 239억원·방문객 668만명 돌파 광주다운 관광상품 발굴 성과...연간 도시이용인구 3000만 달성 목표

출범 1년을 맞은 광주관광공사가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 프로젝트를 선도하면서, 연간 광주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달성의 꿈도 무르익어가고 있다.

22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1일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혁신 시책에 따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출범한 광주관광공사는 5대 시정 목표 중 하나인 '상상이 현실이 되는 풀썸도시' 실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관광공사는 특히 컨벤션센터 운영 및 마이스, 관광, 도시마케팅을 아우르는 핵심기관으로 재

편됨에 따라 구조·관광·경영 등 3대 혁신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광주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사는 가장 먼저 관리직을 30% 축소하고 양 기관 직원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속도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데 성공했다.

공사는 또 타 지역·타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외연 확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 전북 지역 관광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 대학, 벤처투자기관,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등 10여 개 이상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실질적인 협업프로그램도 발굴·추진 중이다.

특히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 등 신사업에도 적극 뛰어 들어 무등산, 미식, 역사 등 주요관광자원을 활용한 광주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에는 스포츠, 미식, 예술, 종교, 의향 등을 주제로 광주만의 관광콘텐츠를 발굴·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공사 산하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가 지원한 지역 내 18개 관광 관련 기업도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루나C&A와 다운컴퍼니 등 2개 기업은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기업에 선정됐고, '쏘잉' 누비팁블러 제품은 스타벅스 매장에 입점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또 '민디마인드'는 대한민국관광공모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더 좋은 커피'는 무등산 수박 분말커피로 특허출원을 받는 등 알찬 결과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

명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광주관광공사는 출범 1년을 맞아 관광객 668만명·매출 239억원이라는 역대급 성과도 달성했다.

지난해 광주를 찾은 관광객은 내국인 667만 6715명, 외국인 4319명 등 총 668만1034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626만8660명(외국인 4921명)보다 41만여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광주 방문객은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 303만 1716명(717명), 2021년 367만5106명(83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광주 방문객 중 유료시설 이용객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198만6542명에서 지난해 220만74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관광 매출액 역시 239억원으로, 코로나 19 해체 직후 관광소비 열풍이 거셌던 2022년 199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올해도 전반기 기준 산업부 국내전시지원사업,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등 각종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해 사업 유치와 함께 국비 5억원 등도 확보했다.

광주관광공사는 올 연말까지 방문객수 700만명 돌파에 이어 2025년 732만7186명, 2030년 연간 3000만명 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은 "체계 관광 확보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적극 개발하고, 광주형 마이스 벨트, 웰니스 관광거점 시설 조성 등과 함께 흥산강·황룡강 100리길 Y-프로젝트, 복합쇼핑몰 등 지역의 대형 관광개발사업에도 참여해 공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특히 2026년까지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익사이팅 광주'를 실현해 광주도시이용인구 3000만명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홍준표 시장, 이번엔 스포츠로 '달빛동맹'

대구서 광주-대구 축구경기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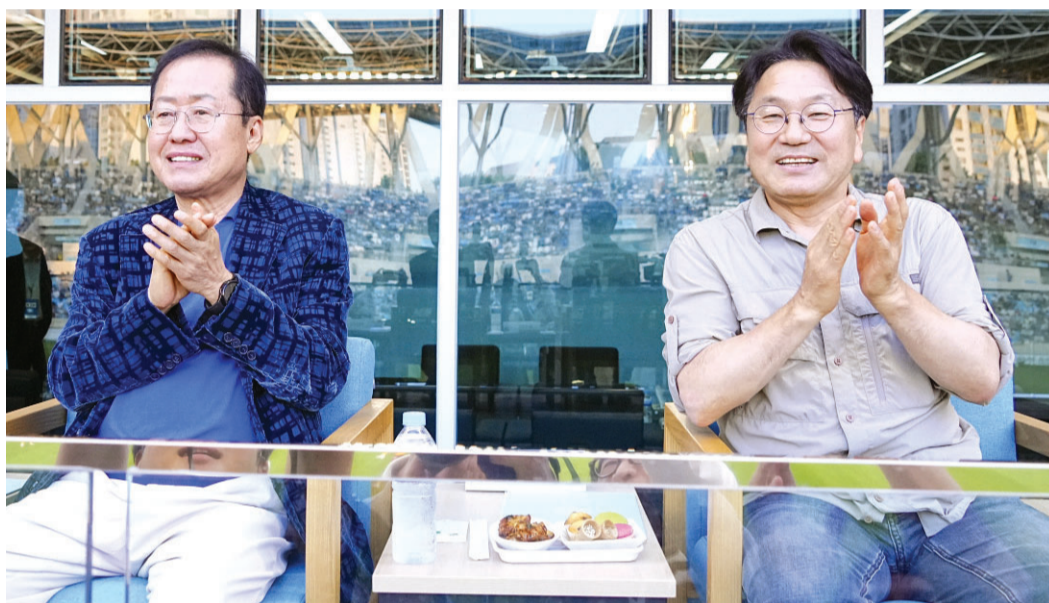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스포츠로 뭉쳤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 '광주FC-대구FC 축구 경기'를 함께 관람했다. 양 시장은 경기 시작 전 관중들에게 인사하며 프로축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FC 원정팬들이 있는 원정석도 짝꿍 방문해 "앞으로도 광주FC를 변함없이 사랑해 달라"고 말했다. 양 시장이 스포츠 경기를 함께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달빛 동맹'을 고두보로 답보상태에 있던 균형발전특별법과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등 큰 결실을 거뒀다. 양 시장은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 거대경제권 조성 사업도 함께 하는 등 달빛동맹을 '산업동맹'으로 확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경기관람에 앞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대구 군위군에서 김진열 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대구시 DGB대구은행파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광주FC-대구FC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위군수를 만나 최종 이진지 선정, 주민 설득과정, 주민지원책, 접근교통망 등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다.

공항 조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배치 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외국인주민 정착·사회통합 돕는다

도정 모니터링단 30명 위촉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홍보 등

전남도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5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30명을 위촉하고 첫 간담회를 지난 21일 보성 북재출에서 개최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부터는 근로·학업 등으로 방일 참석이 어려웠던 단원의 상황을 고려해, 주말을 이용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참석률을 높여 모니터링단원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간담회는 모니터링단 위촉장 수여, 5기 모니터링단 운영 방향과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안내, 정책 제안 및 거주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2019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 5기를 맞이한 전라남도 외국인주민 모니터링단은 더 많은 외국인주민에게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인원을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또 결혼이주여성 90%에 편중됐던 지난 기수와 달리, 이번에는 공개 모집과 사·군 추천을 거쳐 베트남, 중국, 네팔 등 9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2년간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난 2년간 제4기 모니터링단원의 제안사항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정보 제공, 무료 법률상담 및 의료 지원 서비스 홍보 확대, 누리소통망(SNS) 활용 모니터링단 소통 창구 강화 등 활동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이 외에도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주민의 정착과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개소 목표로 추진 중인 전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외국인주민을 접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사회가 됐다"며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융화돼 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에서 최수종과 연기 캠프... 단편 영화·창작극 제작

전남 청소년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영상 제작 뿐 아니라 연기·연극·뮤지컬의 재미를 맛볼 기회가 마련됐다.

22일 전남영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를 연다.

올해로 13회 짝인 연기캠프는 사전 모집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남지역 청소년(중학생 27명·고교생 23명) 50명이 영상연기·1인 크리에이터·연극·

뮤지컬·영상제작반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들은 직접 영상기획, 시나리오·콘티 작성, 영상 촬영, 연기·연극·뮤지컬 실습 등에 참여한 뒤 직접 5분 내외의 단편 영화, 유튜브 숏폼, 25분 상당의 창작극을 제작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캠프에서는 최수종씨 뿐 아니라 TV 등을 통해 서만 접했던 유명 배우와 감독 등이 강사로 나서, 현장의 이야기와 경험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영화 천일동안·미끼 등에 출연한 양정원씨가 책임 강사로, 드라마와 광고 출연 경험이 많은 권성현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연기예술 겸임교수가 영상연기 강사로 참여한다. 심윤보 엘비스 대표감독은 영상 제작 강사로, 윤철중 공공협동조합 대표는 1인 크리에이터 강사로 나선다. 하성민 뮤지컬배우는 연극반 강사로 학생들과 만나고 정현지 배우는 뮤지컬 강사로 참여한다. 전남영상위원 위위원장인 배우 최수종씨도 캠프 기간 함께 참여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산업금융협력관에 김상일씨 위촉

산업은행 수석심사전문위원 출신

광주시는 22일 산업금융협력관으로 김상일 산업은행 수석심사전문위원(1급)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협력관은 앞으로 1년간 광주시 주력산업에 대한 금융정책 자문, 지역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협력한다. 광주시와 산업은행 간 소통, 현안 사업 금융 지원, 첨단 신산업·주력산업·전통산

업 고도화 등 추진도 지원한다.

김 협력관은 1991년부터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 서울 가산지점장 등을 거쳐 심사2부 수석심사전문위원을 지냈다.

산업은행은 연말에 호남권 투자금융 센터를 광주에 설치해 지역 유망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투자유치, 지역특화산업 금융지원 등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